

가정위탁서비스의 보호형태별 특성과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요인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oster Care Types and Factors of the Adjustability for the Foster Children

승의여자대학 가족복지학과
전임강사 양심영

Dep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Full-time lecturer : Sim-Young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요약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family foster ca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of foster parents-surrogate, kin, general parents and predicting factors of foster children's adjustability to new environment. Participants were 618 cases of foster parents in 17 areas of the country through stratified sampling. It was found that the surrogate foster parent, tends to be older, received less education, has lower income, and is in poor health, as opposed to kin parents or general foster parents.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foster parent's age, living arrangement, income, education, consideration of foster child, and the periods of foster care experience as well as child's sex, contact of biological parents on emotional, behavioral, and family relational adjustment of the foster children.

주제어(Key Words): 가정위탁보호서비스(family foster care service), 위탁부모형태 (foster family types), 적응(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Sim-Young Ya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oong Eui Women's College, #8-3 Yejang-dong, Chung-Gu, Seoul, Korea Tel: 82-2-3708-9225 E-mail: yangsy@sewc.ac.kr

I. 서론

가정은 아동들을 양육하는 최우선의 환경으로서 아동에게 안정되고 영구적인 가정의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이유 등 가족해체의 위험과 가족기능의 약화로 아동이 친 가족과 살 수 없는 경우 대리보호의 안정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아동복지서비스이다(장인협, 오정수, 2000).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전개는 수용시설보다 가정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서구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 활발히 시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유교적 혈통중심의 문화적 배경, 위탁보호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1980년대 일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다 중단되었으며, 입양 기관에서의 아동 배치 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입양위탁이 주류를 이루었다(장인협, 오정수, 2000). 이후 1999년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를 강조하는 취지하에 정부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호받는 위탁아동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바, 법적 위탁아동의 수가 2000년 1,772명이었으나 2001년 12월 말 4,425명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 통계, 2002).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가정위탁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가족중심적 보호를 꾀하고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분담을 확대적용하여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다른 한편 가정위탁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해 가정위탁세대구성의 내용이나 제도적 측면에서의 미비점등은 정책적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탁보호서비스에 관한 평가의 기초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위탁아동의 복리라고 할 때 아동을 중심으로 위탁환경의 질적 내용이 검토되고 가정위탁생활에서 아동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보호내용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위탁보호의 현실이 서구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포함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정위탁보호의 수적 급증은 국내아동에 대한 독특한 보호양식인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조부모, 친인척이 있는 경우 가정위탁보호의 범주로 전환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은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정위탁보호형태가 주를 이루어 일반가정에 의해 아동의 친가정으로서의 복리를 목표로 하는 서구의 가정위탁보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우리나라 위탁보호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위탁환경들을 실증적 토대 위에서 비교하거나 가정위탁보호서비스 하의 위탁아동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국내에 전무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행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수혜대상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위탁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들은 아동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측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하의 아동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

-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규정상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지원대상인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가정의 보호형태는 위탁부모, 아동, 위탁환경의 내용에서 차별적 특성들을 나타내는가?
- 2) 위탁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적응 및 그와 관련된 특성들을 논의할 때, 적응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심리적 기제의 작용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위탁환경을 중심으로 한 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동을 둘러싼 다원화된 자원체계들이 고유한 문화적 특징 하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Scannapieco et al., 1996), 아동양육과정에서의 적응은 친부모, 양육부모, 가정 내 관계들, 나아가 지역사회나 사회적 조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Bronfenbrenner, 1989; Orme, 2001).

1. 위탁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생태학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적응에 대한 위탁환경의 범위로서 위탁가정의 보호형태에 따른 위탁부모의 특성, 물리적 위탁환경 및 심리 사회적 환경의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들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위탁 보호형태에 따른 특성

위탁가정의 형태는 크게 아동과 혈연관계에 있는 친인척가정과 일반가정의 보호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친인척가정의 형태를 더욱 세분화하여 가정위탁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즉 위탁보호가정은 다음의 세 형태로 분류된다(보건복지부, 2001).

① 부모를 제외한 부양의무자로서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②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의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③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위의 첫 번째 형태인 대리양육가정은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를 별도의 위탁보호형태로 구분한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한 위탁형태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1년 12월 말, 소년가정에 의한 위탁아동의 유형이 전체 위탁아동 4,425명 가운데 3,454명을 차지함으로써 소년소녀가정세대로부터의 전환된 형태임이 자명하다(보건복지부 통계, 2002). 이러한 배경은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정위탁과 아직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동안 국내의 연구들의 소년소녀가장의 아동 보호의 체제 하에서 지도감독 강화나 물질적, 교육적 원조 등에 대한 요구의 주장(문선화, 1995a, 1998b, 2001c; 김응석, 이상현, 1994; 최현숙, 1996)이 위탁가정서비스의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보다 직접적으로 가정위탁보호의 정책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며(이기정, 1999; 고승희, 2001; 권은경,

2001), 최근 전재일과 박영주(2002)의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의 가정위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나승혜(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경기도 지역의 소수의 친인척 가정위탁세대와 일반 위탁모의 육구의 실태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역설하고 있다. 이의 조부모 혹은 친인척에 의한 위탁서비스의 문제점이 사례연구들을 통하여 지적되었고(허남순, 1999b) 민간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한 일반가정위탁의 위탁교육 및 보호현황 등이 보고되고 있다(한국복지재단, 2001; 한국수양부모협회, 2000). 이상 국내의 위탁관련 연구들은 최근의 가정위탁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여 위탁부모의 형태에 따른 보호환경적 특징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으며 한정된 위탁형태만을 다루거나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흥미롭게도 구미에서는 친인척에 의한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이후 증가되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친인척 위탁보호가 확대가족의 결속을 피하여 배치시 아동의 정신적 충격이 감소할 수 있고 친부모와 아동의 접촉을 위한 기회가 커진다는 점에서 아동의 복리에 기여하지만 자격, 감독 및 사후관리의 소홀 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Crumbley & Little, 1997; Scannapieco & Hegar 1995; Berrick et al., 1994; Iglehart, 1994).

외국의 실증연구에서 친인척부모들과 일반위탁부모들을 비교하는 특성들 중 연령, 건강,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 등이 위탁환경의 질에 어떻게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가를 검토하였을 때 대부분 일반위탁부모에 의한 양육이 친인척에 의한 양육보다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Berrick et al., 1994). 그러나 친인척보호하의 아동들이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보다 정신적 건강문제나 행동적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하였으며(Berrick et al., 1994; Iglehart, 1994) 보호받는 동안 부당한 처우나 위협에 대한 보고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Zuravin et al., 1993). 정서적 문제발생에 있어서도

친인척보호하의 아동들이 더 낮은 빈도를 보였다(Landsvek et al., 1996; Thompson & Fuhr, 1992; Stein et al.,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위탁 형태에 따른 위탁부모의 특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2) 물리적 환경에 따른 특성

물리적 환경으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위탁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동이 독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환경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이 제공되는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다(Berrick et al., 1994). 이를 위탁보호의 형태와 관련시켜 본 결과, 친인척 보호자의 물리적 이웃환경은 일반 위탁 가정보다 좋지 못하며 일반 위탁가정에서 안전장치 등의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적응과의 관련성에서는 친인척보호하의 아동들이 일반가정에 배치된 아동들보다 환경면에서 더 적은 변화를 경험하며(Benedict & Zuravin, 1992; Berrick et al., 1994; Iglehart, 1994) 더 오랜기간 같은 가정에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nedict & White, 1991; Dubowitz, 1990; Thornton, 1991; Gabel, 1992; Wulczyn & Goerge, 1992; Berrick et al., 1994; Courtney, 1994). 따라서 아동의 물리적 환경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나 아동에게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심리·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성

아동의 심리 사회적 환경과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는 가족의 기능적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위탁아동이 새로운 위탁가족에 적응하는가의 차원 뿐 아니라 아동을 받아들인 위탁가정의 입장에서 기존의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발생 및 증가, 가족역할의 재조정, 가족대화의 증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된다(이송이, 1999; 강수진, 2000). 이는 가족체계의 상호영향력에 기초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친부모와의 왕래나 접촉이 위탁아동에게 어떠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주 논의되어 왔으며(Festinger, 1983; Zimmerman, 1982; Fanshel & Shinn, 1978; Triseliotis & Russell, 1984), 이 외 위탁부모 부재시 대신할 보호자, 복지 이용프로그램(Berrick et al., 1994) 등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고되었다. 한편 아동의 심리적 환경을 위탁보호형태와 연관하였을 때 친인척이 보호하는 경우 위탁아동의 생물학적 뿌리를 알고 가족에 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유리하여 안정감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있다(Miller et al., 2000).

2. 위탁아동의 적응

가정위탁보호에서 아동의 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개별적 특성과 배치되는 위탁가정의 상황들은 적응에 관한 통합적 개념화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위탁아동의 적응에 관한 논의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며 서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있으나 다차원적인 정의를 포괄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으로 알려져 있다(Altshuler & Gleeson, 1999).

위탁아동의 적응개념에서 주요 접근은 전반적인 기능(overall functioning)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coping)하여 발달적 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하는가를 다루고 있다(Thorpe, 1974, 1980; Fanshel & Shinn, 1978; Festinger, 1983; Gil & Bogart, 1982; Rest & Watson, 1984; Fein et al., 1990; Dubowitz et al., 1993, 1994; Iglehart, 1994). 여기서 전반적인 기능수행이라고 할 때 위탁아동의 기능에 관한 영역의 설정은 다양하다. Dubowitz 등(1994)은 적응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정서적 기능, 행동적 기능, 학교에서의 기능수행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세 기능영역을 기준으로 기존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적응의 측면에서 연구들은 정신과적 사정

(screening)이나 투사적 테스트, 조사자가 고안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하거나(Frank, 1980; Marcus, 1991; Swire & Kavalier, 1977)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가정위탁아동들의 정서적 문제의 수준을 평가하였다(Halfon et al., 1992; Takayama et al., 1994; Garland et al., 1996). 행동적 적응의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동적 문제의 발생빈도나 강도에 따라 비교하거나(Berrick et al., 1994; Dubowitz et al., 1993; Garland et al., 1996; Glisson, 1996) 다른 변인들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행동적 적응의 발생에 관심을 보였다(Marcus, 1991; Runyan & Gould, 1985; Hulsey & White, 1989; Landsverk et al., 1996). 이 외 학교에서의 수행측면의 적응은 학교성적 기록, 성취도 테스트 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Heath et al., 1994; Runyan & Gould, 1985; George et al., 1992)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육체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의료적 기록 혹은 신체검사를 활용하였다(Chernoff et al., 1994; DuRousseau et al., 1991; Halfon et al., 1995).

한편 다른 영역으로서 위탁아동의 위탁가정에서의 배치의 철회가 아동의 적응을 판가름하는 결과로서 측정되기도 한다(Tam & Ho, 1996). 이는 가정위탁보호를 아동을 위한 안정되고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위탁가정에서의 철회는 아동의 적응에 부적절한 경우의 최종적인 조치라고 판단하는 연유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적응을 논의하는 시점도 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가정위탁보호를 통한 아동의 적응을 판가름하는 시기가 현재의 단일시점만으로 이루어질 때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적응과정의 변화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논의하는 연구들(Fanshel & Shinn, 1978; Gil & Bogart, 1982; Lansverk et al., 1996; McIntyre & Keesler, 1986; Stein et al., 1996; Runyan & Gould, 1985; Thompson & Fuhr, 1992), 이 외에 아동이 일정한 연령(예: 18세)에 이르거나 성인이 된 후 적응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Benedict & Zuravin 1996; Harari, 1980; Zimmerman, 1982; Fanshel & Grundy,

1990; Barth, 1990; Cook, 1992).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적응을 아동이 변화된 위탁환경에서의 전반적인 기능수행으로 파악하고 적응의 목표를 아동이 현재 위탁가정에서 발달적 탄력성을 유지하며 아동을 포함한 위탁가족체계가 안정화를 이루는 것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에 관하여 위탁아동 개인적 발달차원인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기능수행과 새로운 위탁가정에서의 가족관계적 측면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지원대상가정으로서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과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및 일반 위탁가정의 만 3세 이상의 위탁아동을 둔 위탁부모이다.

조사의 표집방법은 위탁가정의 유형별 특징과 전국의 지역이 동시에 고려된 층화표집을 사용하여 서울 91사례, 광역시 239사례, 도 단위지역 412사례 등 총 769사례가 표집대상으로 선택되었다. 2001년 8월 현재 신규 책정된 전국의 2,857 가정위탁세대 가운데 위탁사업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의 협조로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탁부모에게 개별 면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이 가능한 최종 618사례가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한 표준화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측정에 있어 독립변인들의 범주로서 위탁가정의 구성원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위탁가정의 구성원 환경의 내용은 위탁부모의 형태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들, 위탁관련 경험에 관한 특성들, 위탁아동의 특성을 포함한다. 위탁부모의 형태는 아동복지의 가정위탁보

호의 법적 대상자인 대리가정형태의 부모, 친인척, 일반가정의 부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주거형태, 건강상태가 측정되었다. 위탁보호경험에서는 위탁횟수와 위탁경험기간, 현재까지의 보호아동수를 포함시켰으며 위탁아동의 특성은 성별, 연령, 현재까지 보호받은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범주로는 아동의 독방소유여부, 주거지역의 적합성, 지역 내 아동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환경의 범주로는 위탁부모의 부재시 대리보호자의 유무, 아동에 대한 관심유무, 위탁교육의 유무, 가족구성원들의 위탁에 대한 태도, 친부모 방문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인들의 아동의 적응여부에 대한 예측에서는 모형의 단순화와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분화(dichotomize)하여 분석하였다.

위탁아동의 적응은 정서적, 행동적, 가족관계적 영역에서의 기능성을 살펴보았다. 정서적 적응은 대만의 가정위탁제도의 아동적응척도를 참조하여 아동의 정서적 적응의 내용을 불안초조, 혼란스러움, 경계, 싸움, 눈맞추기를 꺼림, 기가 죽어 있음 등의 6개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中華兒童局, 1998). 행동적 적응은 아동의 행동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Scale)를 참조로 학습능력의 장애, 도벽, 폭력성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 음식을 자제할 줄 모름, 산만하며 주의집중을 못함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적 적응은 Tavitan 등(1987)이 개발한 40문항의 가족기능척도(Family Functioning Scale)를 최희진(1998)이 재구성한 척도 문항을 활용하여 가족과 휴일을 함께 보냄, 문제를 서로 의논함,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 서로 하는 일에 관심이 없음,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 친척이나 다른 가족과 어울리지 않음 등의 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행동적, 가족관계적 적응영역의 각 항목들은 아주 심한 정도에서 매우 경미한 정도까지 5점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적응여부의 판별은 아주 심한 정도가 각 적응영역의 항목가운데 한 가지이상 발생한 경우를 부적응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아동의 성향에 따라 부적응의 현상이 다르게

표출될 수 있으며 적응영역의 한 항목내용이라도 심각성의 정도가 극심하다면 적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아동에 따라 적응영역의 양상들은 다양하여 각 항목들의 총합이나 평균을 적응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항목들의 정도 간에 상쇄효과가 발생하여 적응현상을 선명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측정변인들은 가정위탁에 관련된 업무를 현재 맡고 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아동복지 상담전공자, 사회복지학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를 통하여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제거, 수정하여 문항의 타당도를 높였다. 수정된 후 적응의 세 영역인 정서적, 행동적, 가족관계적 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각각 .68, .74, .71로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위탁보호형태에 따른 위탁부모 및 아동의 특성, 그리고 위탁아동의 환경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t-검정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아동의 정서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유의성 정도를 독립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stepwise selec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에 유의하게 나타나는 변수들의 적응에 대한 정보를 형상공간(configuration space)에 표시함으로써 최종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였다. 위의 방법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인 경우로 판정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1, USA)를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위탁형태별 특성

〈표 1〉은 위탁부모에 관련된 변수(연령, 성별, 교

〈표 1〉 위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일반 N=149(%)	친인척 N=223(%)	대리 N=246(%)	p-값
연령(년)	54.43±12.69	46.78±11.09	65.42±11.18	< 0.0001
교육수준				< 0.0001
고졸이상	62(41.61)	107(47.98)	36(14.63)	
초-중졸	54(36.24)	100(44.84)	90(36.59)	
무학	33(22.14)	16(7.17)	120(48.78)	
월수입				< 0.0001
50만원 미만	43(28.86)	41(18.39)	105(42.68)	
50-100만원	40(26.85)	35(15.70)	92(37.40)	
100만원이상	66(44.29)	147(65.92)	49(19.92)	
주거형태				0.0166
자 택	80(53.69)	121(54.26)	104(42.28)	
기 타	69(46.31)	102(45.74)	142(57.72)	
건강상태				< 0.0001
양호	92(61.74)	161(72.20)	93(37.80)	
안 좋음	57(38.26)	62(27.80)	153(62.20)	
위탁 경험 여부				< 0.0001
예	41(27.52)	14(6.28)	14(5.69)	
아니오	108(72.48)	209(93.72)	232(94.31)	
위탁 경험기간(년)	4.48±1.11	4.17±1.3	4.53±1.16	0.0040
위탁 횟수(/년)	1.57±1.91	0.84±0.77	0.87±1.09	< 0.0001
위탁 아동수(명)	3.31±7.15	1.47±1.22	1.50±1.43	< 0.0001

Results are given as number(percent) or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by Chi-square test or Student's t-test.

육수준, 월수입, 주거형태, 건강상태, 위탁 경험여부,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 아동수)를 선별하여 일반 가정, 친인척가정, 대리가정 등 세 집단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연령에서는 대리, 일반, 친인척 순으로 대리위탁부모가 나이가 가장 많았으며($p<0.0001$), 교육수준에서는 친인척, 일반가정, 대리가정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p<0.001$). 월수입에서는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리가정에서 42.68%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상은 친인척(65.92%), 일반(44.29%)의 순이었다($p<0.0001$). 주거형태에서는 대리가정에 비해 일반가정이나 친인척이 자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p=0.0166$), 위탁부모의 건강상태에서는 대리가정 중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62.2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또한, 가정위탁경험은

일반가정이 가장 많았으며($p<0.0001$), 가정위탁 경험 기간은 대리가정, 일반, 친인척 가정의 순이었으며 평균 4.5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40$). 가정위탁을 제공했던 횟수는 일반가정이 년 1.57회로 가장 많았으며($p<0.0001$), 위탁했던 아동수에서도 일반가정의 경우 평균 3.31명 정도로 가장 많았다($p<0.0001$).

〈표 2〉는 현재 위탁아동에 관련된 변수(현재연령, 보호기간, 성별, 독방소유여부, 주거지역 양육적합성 여부, 지역 내 아동시설 및 프로그램 보유여부(보통 이상/미만), 부채시 대리보호자유무,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정도, 위탁교육유무, 구성원들의 위탁수용여부, 친부모 방문횟수)에 따라 일반, 친인척, 대리가정 등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표 2〉 현재 위탁아동 및 위탁환경에 관한 특성

	일반 N=149(%)	친인척 N=223(%)	대리 N=246(%)	p-값
현재 연령(년)	12.89±4.14	14.17±3.05	13.88±3.32	0.0016
보호기간(개월)	78.39±53.51	69.54±57.74	99.57±58.85	< 0.0001
성별				0.0147
남	62(41.61)	127(56.95)	123(50.00)	
녀	87(58.39)	96(43.05)	123(50.00)	
생활공간(독방소유)				NS
예	50(33.56)	86(38.57)	80(32.52)	
아니오	99(66.44)	137(61.43)	166(67.48)	
주거지역 양육 적합성				0.0423
적합	129(86.58)	182(81.61)	188(76.42)	
부적합	20(13.42)	41(18.39)	58(23.58)	
지역내 아동시설/프로그램				NS
충분	102(68.46)	158(70.85)	152(61.79)	
불충분	47(31.54)	65(29.15)	94(38.21)	
부재시 대리 보호자 유무				< 0.0001
예	101(67.79)	119(53.36)	112(45.53)	
아니오	48(32.21)	104(46.64)	134(54.47)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정도				0.0149
충분	136(91.28)	190(85.20)	198(80.49)	
불충분	13(8.72)	33(14.80)	48(19.51)	
위탁교육 유무				0.0021
예	18(12.08)	13(5.83)	8(3.25)	
아니오	131(87.92)	210(94.17)	238(96.75)	
구성원들의 위탁수용 여부				0.0027
찬성	133(89.26)	174(78.03)	216(87.80)	
반대	16(10.74)	49(21.97)	30(12.20)	
친부모 방문 횟수(/년)	7.01±1.48	7.06±1.54	6.91±1.58	NS

Results are given as number (percent) or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by Chi-square test or Student's t-test.

결과, 현재 위탁아동의 연령에서는 친인척(14.17세), 대리(13.88세), 일반(12.89세) 순으로 나타났으며 ($p=0.0016$), 위탁아동의 성별분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47$) 남아의 경우 친인척(67.95%)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에서는 여아가 많았다(58.39%). 보호기간에서는 대리가정이 9년으로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001$). 그러나 생활공간으로서의 독방소유여부, 지역내 아동시설/프로그램의 충분성에서

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각각 $p>0.05$). 그리고 주거지역에서의 아동양육적합성여부에서는 일반가정, 친인척, 대리가정의 순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23$) 위탁부모가 부재시 대리보호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가정(67.79%), 친인척(53.36%), 대리(45.53%)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도 일반가정, 친인척, 대리가정의 순이었으며($p=0.0149$) 위탁교육경험유무에서는 세 집단 모두 교육을 대부

분 받지 않았으나 교육을 받은 비율에서 일반가정(12.08%)이 친인척(5.83%), 대리가정(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21). 가족구성원들이 위탁아동 수용에 대하여 일반가정(89.26%)이나 대리가정(87.80%)이 친인척가정(78.03%)보다 더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27). 그러나 친부모가 아동을 방문하는 횟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2. 위탁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위탁아동의 적응의 차원은 정서적, 행동적, 가족

관계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위의 위탁에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을 아래에서 검증하였다. <표 3>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대상 위탁아동 618명 중 563명(91.10%)은 적응한 집단으로 55명(9.90%)은 부적응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위탁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변수 중에서 위탁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건강상태는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주거형태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98) 위탁부모가 자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정서적 적응집단 563명 가운데 287명으로서 자택을 소유하지 못한

<표 3> 아동의 정서적 적응

독립 변수	적응 N=563	부적응 N=55	p-값	다중 로지스틱회귀	
				OR	(95% CI)
위탁부모(일반/친인척/대리)	138/219/206	11/27/17	NS		
위탁부모연령(50세미만/이상)	204/359	16/39	NS		
교육수준(중졸이상/미만)	281/282	25/30	NS		
월수입(100만원 이하/초과)	330/233	37/18	NS		
주거형태(자택/기타)	287/276	18/37	0,0098	0,25**	(0,17, 0,35)
건강상태(양호/보통이하)	319/244	27/28	NS		
위탁경험(예/아니오)	62/501	7/48	NS		
위탁기간(2년미만/이상)	110/453	6/49	NS		
위탁횟수(1회이하/2회이상)	387/176	34/21	NS		
위탁아동수(1명이하/2명이상)	361/202	35/20	NS		
현위탁아동성별(남/여)	277/286	35/20	0,0410	-	-
현재연령(10세미만/이상)	74/489	5/50	NS		
현재보호기간(5년미만/이상)	236/327	22/33	NS		
독방소유여부(예/아니오)	199/364	17/38	NS		
주거지역 적합성(적합/부적합)	459/104	40/15	NS		
아동시설/프로그램여부(충분/불충분)	377/186	35/20	NS		
부재시 보호자 유무(예/아니오)	306/257	26/29	NS		
관심유무(충분/불충분)	482/81	42/13	NS		
위탁교육 유무(예/아니오)	37/526	2/53	NS		
구성원의 위탁찬성(예/아니오)	480/83	43/12	NS		
친부모방문여부(예/아니오)	79/484	17/38	0,001	2,12	(1,23, 3,82)

NS = not significant level $\alpha=0,05$ by Chi-square test :

OR=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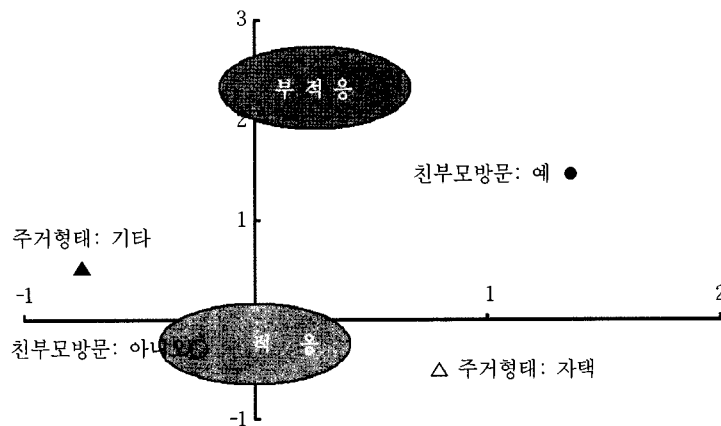
276명보다 많았으며, 정서적 부적응을 보인 아동의 55명 가운데 37명이 위탁부모가 자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유한 18명보다 두 배 이상 부적응의 경우를 보였다. 또한, 위탁형태가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의 경우 전체 149명 중 138명(92.6%)이 적응을 보였으며 부적응아동은 11명(7.4%)이었다. 친인척의 경우에서는 각각 219명(89.0%), 27명(11%) 또한 대리가정의 경우에는 각각 206명(91.7%), 17명(8.3%)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05$). 이 외에도 위탁부모의 이전 위탁경험유무, 위탁기간의 2년 경과유무, 위탁 아동수는 적응에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0.05$).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면에서 아동의 성별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적응집단 중 여아가 286명, 남아가 277명이었으며 부적응집단은 남아가 35명, 여아가 20명으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적으로 부적응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10$). 한편, 아동의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 가운데 친부모방문여부는 정서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즉, 친부모 방문이 부정적 정서적 영향을 끼쳐 오히려 방문이 없었던 522명의 아동 중 38명을 제외한 484명의 아동이 적응집단에 속하였다. 이상에서 아동의 정서적 적응

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주거형태, 위탁아동의 성별, 친부모방문여부 등에서 독립적인 유의한 변수를 선별하기 위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형태($OR=0.25$, 95% $CI=(0.17, 0.35)$; $p<0.001$), 친부모방문여부($OR=2.12$, 95% $CI=(1.23, 3.82)$; $p<0.01$)가 독립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형상공간(configuration)위에 도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정서적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집단간 비유사성(dissimilarity)은 수직축과 수평축을 기준으로 하여 적응집단과 비적응 집단이 각각 원점(0, 0)과 수평축 위쪽에 존재하였으며, 친부모 방문여부 변인 역시 유사하게 위치하였다. 그러나 주거형태는 적응집단과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위치 결과를 재 분석해 보면, 친부모 방문이 없었던 경우가 적응 영역안에 포함될 정도로 아동의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친부모 방문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응보다 부적응영역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거형태에 있어서 위탁부모가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응집단에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기타 다른 주거형



<그림 1> 대응분석을 통한 위탁아동의 정서적 적응과 부적응 요인도

태(전세 등)는 부적응집단영역에 가깝다고 보기 어려운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반드시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친부모방문이 없었던 경우와 자택소유의 주거형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친부모방문이 있었던 경우나 주거형태가 자택이 아닌 경우가 직접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대한 <표 4>의 결과는 행동적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간에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행동적으로 적응을 보인 위탁아동은 전체 618명 가운데 421명(68%)이었으며 부적응 아동은 197

명(32%)이었다. 먼저, 위탁보호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가 50세 이상인 경우보다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p=0.0083$) 다중회귀분석 결과 1.5배($OR=0.66, p<0.05$) 더 적응에 용이함을 보였다. 위탁경험기간에서는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응한 아동이 355명으로 부적응한 아동 146명보다 2년 미만인 경우에 각각 66명, 51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OR=0.53, p<0.001$). 아동의 성별에서 여아는 적응집단 중 226명, 부적응집단 중 78명을 차지하여 여아들이 적응을 비교적 잘 하고 있었으며, 남아의 경우는 부적응집단 197명 중 119명으로 여아의 78명보다 더 많은 수가 행동적인 부적응을

<표 4> 아동의 행동적 적응

독립 변수	적응 N=421	부적응 N=197	p-값	다중 로지스틱회귀	
				OR	(95% CI)
위탁부모종류(일반/친인척/대리)	94/181/146	55/65/77	NS		
연령(50세미만/50세이상)	136/285	85/112	0.0083	0.66	(0.47, 0.92)
교육수준(중졸이상/미만)	193/228	113/84	NS		
월수입(100만원 미만/이상)	258/163	109/88	NS		
주거형태(자택/기타)	203/218	102/95	NS		
건강상태(양호/보통이하)	235/186	112/85	NS		
위탁경험(예/아니오)	42/379	28/169	NS		
위탁경험기간(2년미만/이상)	66/355	51/146	0.0021	0.53**	(0.38, 0.73)
위탁횟수(1회이하/2회이상)	292/129	128/69	NS		
위탁아동수(1명이하/2명이상)	259/162	136/61	NS		
현위탁아동성별(남/여)	194/227	119/78	0.0009	0.60*	(0.43, 0.83)
현재연령(10세미만/10세이상)	53/368	27/170	NS		
현재보호기간(5년미만/이상)	161/260	98/99	NS		
독방소유여부(예/아니오)	148/273	68/139	NS		
주거지역 적합성(적합/부적합)	350/71	149/48	NS		
지역내아동시설/프로그램여부(충분/불충분)	281/140	131/66	NS		
부제시 보호자 유무(예/아니오)	226/195	107/90	NS		
관심유무(충분/불충분)	368/53	155/42	0.0041	1.86*	(1.17, 2.96)
위탁교육 유무(예/아니오)	24/397	16/181	NS		
구성원의 위탁찬성(예/아니오)	360/61	162/35	NS		
친부모방문여부(예/아니오)	47/374	50/147	< 0.0001	2.64**	(1.67, 4.15)

NS = not significant level by Chi-square test :

OR=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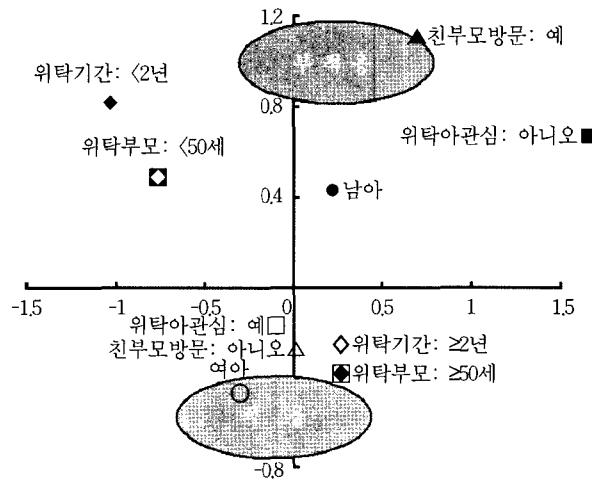
나타냈다(OR=0.60, $p<0.01$). 또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충분한 경우가 불충분한 경우보다 적응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p<0.01$), 친부모 방문여부는 아동의 행동적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p<0.0001$), 다중 로지스틱분석 결과 Odds Ratio가 2.64로서 방문이 없었던 경우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95% CI=(1.67, 4.15); $p<0.0001$).

〈그림 2〉는 아동의 행동적 적응변수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던 〈표 4〉의 결과를 형상화한 것이다. 적응집단은 수평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부적응집단은 위에 존재하였는데 행동적 적응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인들을 살펴보면, 여아인 경우와 친부모 방문이 없었던 경우,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경우, 위탁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위탁 부모가 50세 이상인 요인 등은 적응에 근접된 위치에 존재하였고 반면에 남아, 친부모 방문이 있었던 경우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부적응집단에 가깝게 위치하였다.

위탁아동의 행동적 적응에의 가장 큰 설명요인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아인 경우 적응의 영역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서 여아들이 적응을 매우 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상대

적으로 부적응영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위치하여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부모방문이 없었던 경우는 적응과 관계가 깊고, 친부모 방문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적응에 크게 영향을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위탁부모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위탁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아동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는 경우 등은 적응의 영역에 가까이 위치하여 아동의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부적응의 영역에서는 위탁부모가 50세미만, 2년 미만의 위탁기간을 지니거나,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불충분한 경우 부적응 영역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 영향력이 적응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는 위탁아동의 가족관계 내에서의 적응여부에 미치는 각 요인별 유의성을 평가한 것으로서, 위탁부모의 아동과의 관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건강상태와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유의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 분포에서는 적응집단에 속한 위탁아동은 554명(90%)이었으며 부적응집단은 62명(10.0%)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위탁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위탁형태가 아동의 가족관계에 관한 적응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리가정의 경우가 213



〈그림 2〉 대응분석을 통한 위탁아동의 행동적 적응과 부적응 요인도

〈표 5〉 가족관계 내에서 아동의 적응

독립 변수	적응 N=421	부적응 N=197	p-값	다중 로지스틱회귀	
				OR	(95% CI)
위탁부모종류(일반/친인척/대리)	131/214/211	18/32/12	0,0148	-	-
연령(50세미만/50세이상)	210/346	11/51	0,0018	4,02**	(2,95, 5,46)
교육수준(중졸이상/미만)	291/265	15/47	< 0,0001	5,82**	(3,25,10,42)
월수입(100만원 미만/이상)	315/241	52/10	< 0,0001	5,17**	(2,55,10,48)
주거형태(자택/기타)	281/275	24/38	NS		
건강상태(양호/보통이하)	326/230	21/41	0,0002	-	-
위탁경험(예/아니오)	61/495	9/53	NS		
위탁경험기간(2년미만/2년이상)	110/446	7/55	NS		
위탁횟수(1회이하/2회이상)	382/174	38/24	NS		
위탁아동수(1명이하/2명이상)	357/199	38/24	NS		
현위탁아동 성별(남/여)	278/278	35/27	NS		
현재연령(10세미만/10세이상)	74/482	6/56	NS		
보호기간(5년미만/5년이상)	242/314	17/45	0,0149	-	-
독방소유여부(예/아니오)	193/363	23/39	NS		
주거지역 적합성(적합/부적합)	452/104	47/15	NS		
지역내 아동시설/프로그램여부(충분/불충분)	369/187	43/19	NS		
부재시 보호자 유무(예/아니오)	256/300	29/33	NS		
아동에 대한관심(충분/불충분)	523/95	428/70	NS		
위탁교육 유무(예/아니오)	38/518	2/60	NS		
구성원의 위탁(찬성/반대)	472/84	50/12	NS		
친부모 방문여부(예/아니오)	87/469	10/52	NS		

NS = not significant level by Chi-square te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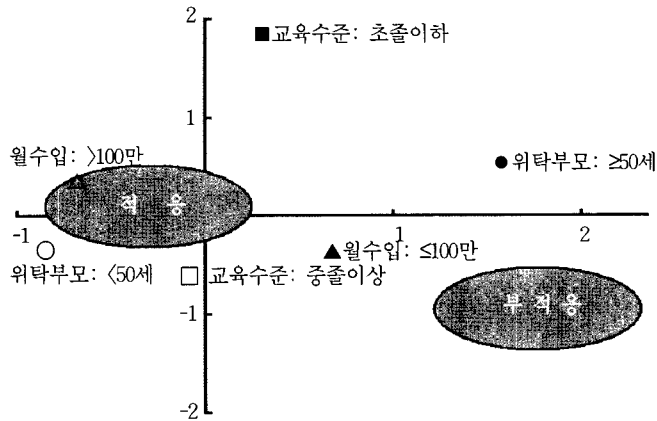
OR=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 p < 0,01, ** p < 0,001

명(38,5%)의 아동이 적응함으로써 가장 많았다(p=0,0148).

그러나 다중 로지스틱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05). 위탁부모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의 아동에게 가족관계 내에서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8).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위탁부모가 50세 이상일 때 미만인 경우보다 4,02배 더 유리함을 보였다(p<0,001). 또한 위탁부모의 교육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OR=5,82, p<0,001), 월수입에서는 평균소득 이상일수록(OR=5,17, p<0,001)

아동의 적응도가 높았다. 위탁부모의 건강상태에서는 양호할수록 아동의 적응비율이 높았으나(적응=93,9%, 부적응=6,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적인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보호기간에서도 5년 미만인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인 아동들에 비해 적응비율이 높았으나 역시, 회귀분석 결과 독립적인 변인은 아니었다(p>0,05).

〈그림 3〉은 〈표 5〉의 최종 결과를 이차원 평면상에 형상화한 것이다. 적응집단은 원점(0, 0)에 근접한 위치에 부적응집단은 수평축 오른쪽의 아래 위치에 존재하였다. 가족관계적 적응을 설명하는 유의



<그림 3> 대응분석을 통한 가족관계 내 아동의 행동적 적응과 부적응 요인도

미한 독립변인으로서 위탁부모의 수입이 100만원 초과와 위탁부모가 50세 미만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졸이상인 경우였으며, 부적응 집단과 관련한 변인 으로서는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 위탁부모가 50세 이상등으로 형성되었으나 적응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즉, 위의 변인들은 부적응에 미치는 정도가 약함을 의미하며, 특히, 교육수준(초졸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무관한 위치에 존재하였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는 우리나라 법적 가정 위탁보호형태에 따른 위탁관련 요인들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아동의 적응에 위탁보호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의 요약과 제언점은 아래와 같이 상술된다.

우선 위탁보호형태에 따른 위탁 환경의 차별성에 관한 결과내용으로서 위탁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리가정의 위탁부모들이 다른 보호형태의 부모와 비교하여 연령이 훨씬 높았고 교육수준과 수입이 낮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위탁형태의 두 분류-일반가정과 친인척보호가

정에 따른 위탁부모의 특성을 비교한 후 친인척 위탁형태의 특징으로서 조모가 주요 위탁자이며 나이가 많고 교육, 수입, 건강 면에서 모두 일반가정의 위탁부모보다 뒤떨어진다는 분석내용과 유사한 것이다(Berrick et al., 1994). 또한 가정위탁경험에서도 대리가정이 일반가정보다 경험이 적었고 위탁했던 아동의 수도 적은 점 역시 미국의 선례들과 같다(Scannapieco & Hegar 1995; Marcus, 1991). 그러나 우리나라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위탁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서구와 다른 점으로써 위탁아동 및 가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위탁부모의 일반적 특성들과 아동의 보호환경을 관련하여 볼 때 주택소유, 주거지 양육 적합성 등 아동의 물리적 환경의 질이 서구의 연구들(Iglehart, 1994; Berrick et al., 1994)에서처럼 일반가정보다 대리가정에서 아동에게 미흡하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사회적 환경으로서 부채시 대리보호자,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 위탁교육 유무, 구성원들의 위탁수용여부에서도 대리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모두 부족함을 보였다. 심리·사회적 환경에서의 위탁형태에 따른 격차는 대리가정의 아동 위탁에 대한 특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위탁수용의 과정이 자발적이며 위탁부모로서의 자격이나 선정기

준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치는 가이다. 최근 영미에서는 증가하는 친인척 위탁보호형태에 대하여 위탁자격기준의 절차 강화와 공식적인 위탁훈련 및 지도감독을 계속 강조하며 실행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간과되어서 안될 점은 대리 혹은 친인척 위탁부모에 대한 자격강화나 심리적 위탁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 위탁양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병행될 때 위탁가정내 아동의 복지는 실현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위탁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가족관계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분석 및 대응분석의 통계적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탁가정형태는 세 영역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탁부모의 특성 가운데 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연령, 주거상태, 수입, 교육, 위탁경험기간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은 위탁부모를 둔 아동이 행동면에서 적응을 더 잘하였으나 가족관계면에서는 오히려 부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가 좋은 경우 정서적으로 적응이 더 용이하였으며 수입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위탁부모하에 아동은 더 가족관계내 적응을 잘하고 있는 있었다. 위탁부모의 위탁경험이 평균 이상인 경우 아동이 행동적인 적응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위탁부모의 특성들을 위탁아동의 적응의 세부 영역에 따라 검토하고 개입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위탁부모의 나이가 많으면 행동적 적응에서는 긍정적이나 가족관계에서 적응하는 데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위탁가정의 형태에 따른 아동의 적응력의 차별성이 다중분석결과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지적한 위탁부모의 특성들이 아동의 적응영역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탁가정형태가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위탁가정의 형태는 위탁부모에 의한 특징적 분류로서 위탁부모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위탁가정의 특징으로서 대리가정의 경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 수입, 건강의 양호정도가 낮은 점, 자택소유 등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았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리가정과 관련된 특성들이 통계적으로 차별성있게 검증되었으므로 아동의 적응에 위탁형태가 전혀 관계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의 특성 중 성별과 위탁보호기간은 적응의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아보다 여아가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서구 한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적 적응 문제와 성별간에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주목된다(Nuffield 보고서, 2000). 이는 아동의 성사회화가 서구와 달리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행동적 문제표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외 아동의 위탁보호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적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였으며 아동이 새로운 위탁환경에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2년 이하의 경우 가족관계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환경 중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의 유무, 친부모의 방문여부가 아동의 적응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 아동이 행동적 측면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족관계내 적응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부모가 아동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나 행동면에서 오히려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 제시되었는 바, 이러한 결과는 서구 연구들이 친부모의 아동방문에 대한 유익성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연구들과 상치되어 보인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000). 그러나 선행 문헌들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으로서 친부모 방문이 정규적이고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의미있는 방문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친부모 방문은 차별적 영향력이 이루어짐을 보고하였다. 즉 아동이 어릴수록 적절한 친부모방문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를 미치기 쉬우며 간헐적이거나 간혹 만나는 방문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부모방문에 대

한 일률적인 권장의 입장을 취하기 보다 친부모-자녀의 만남이 아동에게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관계로 이루어지도록 위탁서비스관련 전문가의 주도하에 사전예방교육과 차등적인 단계별 적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위탁보호서비스의 최근의 변화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위탁보호의 형태들 중 친인척 세대의 아동위탁보호나 입양을 앞둔 일반가정의 유료 위탁에 초점을 두었던 단편적 분석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인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정부의 위탁보호서비스 대상자인 위탁부모들에게 최초로 전국규모의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지역적인 한계성을 극복하였으며 나아가 위탁아동을 위한 적응요인의 예측을 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의 서비스 개입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앞으로 본 논문의 위탁아동의 적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부모 이외에 아동, 학교교사, 관련 사회복지사 등 다면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고 위탁아동의 범위도 더 세분화된 연령배분에 따라 적응을 논의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탁보호 아동의 수적 급증이 아동의 복리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로 작동되기 위해서 위탁보호서비스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현재로서는 위탁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의 대안적 가정에서 부적응한 경우 이에 대한 안전보호체계가 미흡하며 그 결과 아동은 사회적 위험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연유에서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위탁보호서비스의 민·관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성, 위탁부모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의 개입 및 지도감독, 위탁아동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 위탁아동의 삶의 질적 보장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진(2000). 친인척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승희(200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경(200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지속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응석, 이상현(1994). 소년소녀가장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나승혜(2001). 가정위탁보호 위탁부모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화(1995). 소년 소녀가장세대 아동들의 복지증진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 85-106.
- 문선화(1998). 아동복지법과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국아동복지학, 7, 191-226.
- 문선화(2001).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후견인 제도의 정착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1, 7-32.
- 보건복지부(2001). 아동복지법령.
- 이기정(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환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오정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박영준(2002). 가정위탁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8(1), 81-103.
- 中華兒童局(1998). 家庭寄養服務.
- 최희진(1998). 가족기능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숙(1996). 아동가장의 복지문제와 사회적응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4, 53-81.
- 한국복지재단(2001). 가정위탁보호사업 '희망의 등지' 보고서 및 사례집.
- 한국수양부모협회(2001). 위탁아동 양육 방법.
- 허남순(1998a). 가정위탁양육 관계법의 개정. 한국아동복지학, 7, 157-190.
- 허남순(1998b). 가정위탁 관련 아동보호.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 157-186.
- McAuley, C.(1996). 가정위탁보호. 이용교 외 역. 서울: 인간과 복지.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Developmental Issues for Young Children in Foster Care. *Pediatrics*, 106, 1145-1150.
- Beeman, S., Wattenberg, E., Boisen, L., & Bullerdick, S. (1996). *Kinship Foster Care in Minnesota*. Center Advanced Studies in Child Welfare,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
- Benedict, M., & White, R. (1991). Factors Associated with Foster Care Length of Stay. *Child Welfare*, 70(1), 45-58.
- Benedict, M. L., & Zuravin, S. (1992). Foster Children Grown Up: Social, Economic, Educational and Personal Outcomes. DHHS, ACF, *Children's Bureau*, Grant # 90-CW-1076.
- Berrick, J. D. (1997). Assessing Quality of Care in Kinship and Foster Family Care. *Family Relations*, 46, 273-280.
- Berrick, J., & Barth, R. (1994). Research on Kinship Foster Care: What do we know? Where do we go from he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1-2), 1-5.
- Chernoff, R., Combs-Orme, T., Risley-Curtiss, C., & Heisler, A. (1994). Assessing the Health Status of Children Entering Foster Care. *Pediatrics*, 93, 594-601.
- Dubowitz, H. (1990).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Educational Status of Children Placed with Relatives. Final Report*.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School.
- Dubowitz, H., Feigelman, S., Zuravin, S. (1993). A Profile of Kinship Care. *Child Welfare*, 72(2), 153-169.
- Fanshel, D., & Shinn, E. B. (1978). *Children in Foster Car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Festinger, T. (1983). *No One Ever Asked Us... A Postscript to Foster Ca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Final Project Report to the Nuffield Foundation (2000). *Growing up in Foster Care: Long-term Foster Care as a Resource for Children in Need of Care and Protection*.
- Frank, G. (1980). Treatment Needs of Children in Foster Car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 256-263.
- Garland, A. F., Landsverk, J. L., Hough, R. L., & Ellis-MacLeod, E. (1996). Type of Maltreatment as a Predictor of Mental Health Service Use for Children in Foster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20, 675-688.
- Geen, R., & Ckark R. (1999). Preliminary Analysis of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Unpublished.
- Gil, E., & Bogart, K. (1982). Foster Children Speak Out: A Study of Children's Perceptions of Foster Care. *Children Today*, 11, 7-9.
- Glisson, C. (1996). Judicial and Service Decisions for Children Entering State Custody: The Limited Role of Mental Health. *Social Service Review*, 257-281.
- Halfon, N., Berkowitz, G., & Klee, L. (1992).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y Children in Foster Care in California. *Pediatrics*, 89, 1238-1244.
- Harari, T. (1980). *Teenagers Exiting From Foster Family Care: A Retrospective Loo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rden, a., Clark, R., & Maguire, K. (1997). *Informal and Formal Kinship Care. Vol. I: Narrative Report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eath, A. F., Colton, M. J., & Aldgate, J. (1994). Failure to Escape: A Longitudinal Study of Foster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4, 241-260.
- Hulsey, T. C., & White, R. (1989). Family Characteristics and Measures of Behavior in

- Foster and Nonfoster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502-509.
- Iglehart, A. (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07-122.
- Kadushin, A. (1974). *Child Welfare Service*. N. Y.: Macmillan.
- Lansverk, J., Davis, I., Ganger, W., Newton, R., & Johnson, I. (1996). Impact of Child Psychosocial Functioning on Reunification from Out-of-Home Place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4-5), 447-462.
- LeProhn, N. & Pecora, P. Summary (1994). *Summary of the Casey Foster Parent Study*.
- Marcus, R. F. (1991). The Attachments of Children in Foster Car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7, 365-394.
- McDaniel, N., Merkel-Holguin, L., & Brittain, C. (1997). Options for Permanency: An Overview. *Protecting Children*, 13(3), 4-9.
- Peter M. Miller et. al. (2000). Developmental Issues for Young Children in Foster Care. *Pediatrics*, 106, 1145-1150.
- Rest, E. R., & Watson, K. W. (1984). Growing up in Foster Care. *Child Welfare*, 63, 291-308.
- Scannapieco, M., Hegar, R. (1995). From Family Duty to Family Policy: The Evolution of Kinship Care. *Child Welfare*, 74, 200-216.
- Scannapieco, M., Hegar, R., & McAlpine, C. (1997). Kinship Care and Foster Care: A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480-488.
- Seaberg, J. R. & Harrigan, M. P. (1997). Family Functioning in Foster Care. *Families in Society*, 463-470.
- Stein, E., Evans, B., Mazumdar, R., & Rae-Grant, N. (1996).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Foster Care: A Comparison with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1, 385-391.
- Swire, M. R., & Kavalier, F. (1997). The Health Status of Foster Children. *Child Welfare*, 56, 635-653.
- Tavitan, M. L., Lubiner, J. L., Grebstein, L. C., and Velicer, W. F. (1987). Dimension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 191-204.
- Testa, M., & Rolock, N. (1999). Professional Foster Care: A Future Worth Pursuing? *Child Welfare*, 78(1), 451-470.
- Thompson, A. J., & Fuhr, D. (1992). Emotional Disturbance in Fifty Children in the Care of a Child Welfare System.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5, 95-112.
- Thornton, J. (1991).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in Kinship Foster Homes. *Child Welfare*, 70(5), 593-601.
- Thorpe, R. (1980). The Experiences of Children and Parents Living Apart. In J. Triseliotis(Ed.), *New Developments in Foster Care and Adoption* (pp. 85-10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Triseliotis, J., & Russell, J. (1984). *Hard to Place: The Outcome of Adoption and Residential Care*.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Wulczyn, F., & George, R. (1992). Foster care in New York and Illinois: The Challenge of Rapid Change. *Social Service Review*, 278-294.
- Zimmerman, R. B. (1982). *Foster Care in Retrospect*. Tulane Studies in Social Welfare.

(2003년 1월 7일 접수, 2003년 4월 21일 채택)